

보도

“대외 평판도에서 대전환 이룰 것”



대외협력부총장에 박영국 치과대학 교수가 새로 임명됐다. 박 부총장은 평판과 재정의 획기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사진=박지영 기자)

신임 부총장 인터뷰-①대외협력부총장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2월 9일 치과대학 박영국 교수가 신임 대외협력부총장에 임명됐다. 박영국 대외협력부총장은 이번 발령으로 재정예산처장과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단장, 치과대학장과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을 겸임하게 됐다. 박 대외협력부총장은 “개교 70주년을 앞둔 시점에 대외협력부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향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박 부총장이 밝힌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내년으로 다가온 우리학교 개교 70주년이다. 박 부총장은 “우리학교의 위상제고를 위해 국내외 평판도를 높임으로써 구성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학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 유치를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며 “개교 7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기획위원회’를 구상 중이며 이를 통해 2020년에는 세계 100대 대학으로의 지위 확보를 목표로 삼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부총장은 우리학교의 평판에 대해 “최근 우리학교는 국내외 대학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문제점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박 부총장은 “국외 대학평가에서는 평판도 지표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으나 국내 대학평가에서는 평판도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며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구성원과 동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평판도 부분에서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학교의 대외평판도 제고를 위한 TF(Task Force) 구성 계획을 밝혔다. 이번 TF는 대외협력부총장 산하의 별도 기획그룹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이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박 부총장은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구성원과 동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평판도 부분에서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평판도 상승은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바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구성원을 격려했다.

또한 개교 70주년에 맞춰 교육, 연구, 실천 분야에서 다양한 기념사업도 구상 중이라며 “이에 맞춰 발전 기금 모금 캠페인

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전 기금 모금 캠페인은 재정 운용 유연화를 위한 계획의 일부이기도 하다. 박 부총장은 캠페인 뿐 아니라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기금 유치, 대형 국고 지원 사업 유치, 대외장학 유치의 적극적 추진 등 재정 악화를 대비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입학전형료 폐지, 입학금 단계적 축소, 등록금 동결 등이 재정을 압박해 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구성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다. 박 부총장은 “대학은 교수, 학생, 교직원이 소통하고 화합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하는 복합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구성원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소통 체널을 통해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항상 구성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소통과 화합의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우리 대학의 미래가 세계대학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구성원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구성원의 참여를 당부했다.

U-class 시스템은 어떻게 멀어졌다?

안나연 기자 na@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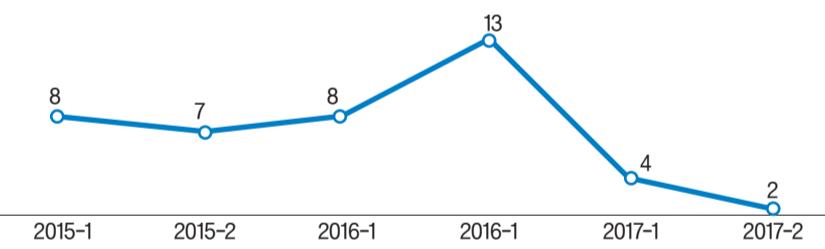
2006년 도입될 당시 효율적인 강의를 목적으로 책상에 부착된 U-Class(유클래스) 출석시스템은 현재 사용이 중지된 상태다. 그러나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인사이드RF 측은 무상으로 제공했던 배터리 교체에 대한 비용을 요구했다. ㈜인사이드RF 담당자는 “소모품 비용에 대한 계약은 2014년까지였지만, 이후에는 경희대학교에 특별한 애정이 있어 단말기 배터리를 무상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었다”고 밝혔다. 유클래스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간 130만 원의 비용이 들 전망이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출결시스템을 완전히 탈착하는 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시스템을 지속할지 여부에 대한 추후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근에는 대형강의인 ‘빅뱅’에서 문명 까지’에서 특히나 불만이 많았다. ‘시스템을 통해 출석확인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다’, ‘고장난 기기가 많아 고장 나지 않은 것을 찾는데 불필요한 시간을 보냈다’와 같이 출석의 용이함을 위해 설치된 유클래스 시스템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결국 출석 확인 방식이 호명으로 변경됐다.

㈜인사이드RF 측은 이런 불만에 대해 “해당 시스템은 일반 교양관이 아닌 의과대학에 더욱 적합해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과대학의 경우 일반 교양강의실과 달리 한 강의실에 학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적으로 특정한 학생이 수업을 듣기에 유클래스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클래스 시스템이 설치된 서울대 의과대학,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도 청운관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서울대 의과대학은 “2015년 이후로 유클래스 시스템의 사용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으며,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역시 “잦은 고장을 이유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유클래스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정기적, 상시적 유지 보수가 있어왔다”며 사용을 하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유클래스 시스템 담당자인 ㈜인사이드RF 또한 “기기가 노후화 되어 출석을 확인할 때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뿐 못 쓰는 기기는 없다”며 “지난 12년간 고장 나서 못 쓰는 기기에 대한 접수는 5건 미만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3개년간 유클래스 시스템 활용 강의 수〉



2018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학군사관(ROTC) 59·60기 후보생모집안내

오늘의 선택
내일의 리더
대한민국
ROTC

지원자격

- 연령: 임관일 기준(만 20~27세 이하인 남여)※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제59기(남여 모두 가능):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는 3학년 재학생)
- 학군 제60기(남자만 해당):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는 2학년 재학생)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2018년 3월 1일 ~ 4월 4일
- 방법: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지원자 접수]란 이용
- 일정
 - 1차 필기고사: 4. 7.(토), 합격자 발표: 4. 26.(목)
 - 2차 체력검정, 면접평가: 4. 28.(토) ~ 5. 25.(금), 합격자 발표: 6. 20.(수)
 - 3차 신원조사, 신체검사: 5. 14.(월) ~ 7. 27.(금), 최종 합격자 발표: 8. 17.(금)
- 문의처: 육군학생군사학교(043)830-6031, 서울캠 학군단: 02) 961-0085 / 국제캠 학군단: 031) 201-3271 ~ 4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는 대학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공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추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육군학생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

